

트렌드 & 스타일

e곳에 가면 명품이 반값

Tokyo holic

WIZWID

plein

njoyNY

FOBOS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인기

회사원 박성웅(33·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마니아다. 박씨는 지난달 일본제품 구매대행 업체인 '도쿄홀릭'에서 최신형 캠코더를 저렴한 가격에 장만했다. 박씨의 캠코더는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은 최신 기종으로, 원·엔환을 하라 등의 영향으로 25% 가량 싼 가격에 구매했다.

주부 윤선희(28·광주 남구 봉선동)씨도 최근 구매대행 사이트인 'G마켓'을 통해 평소 갖고 싶었던 토트백을 실속있게 마련했다. 이 상품은 국내에서 35만 원대에 팔리고 있지만 '클릭' 한 번으로 16만9천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글로벌 쇼핑'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외국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해외 명품 브랜드를 보다 손쉽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국내에 공식 수입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찾는 '투세' 수요가 급증하면서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최근 환율하락으로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데다 구매대행 상품도 기존 패션이나 잡화류에서 가구, 전자제품, 유아용품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e-쇼핑'의 새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



26일 회사원 이진희(여·25)씨가 미국산 캐주얼 의류를 구입하기 위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인 '위즈위드'를 검색하고 있다. 국내 구매대행업은 지난 2001년 문을 연 '위즈위드'를 필두로 지난 7월 현재 관세청 등록업체가 433곳에 달할 만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붓물' 해외 구매대행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 서비스에 나서 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1세대인 '위즈위드(www.wizwid.com)', KT커머스의 '엔조이뉴욕(www.njoyny.com)', 롯데닷컴의 '도쿄홀릭(www.tokyoholic.com)', GS이숍의 '플레인(www.plein.co.kr)' 등에 이어 지난 18일에는 디앤삼이 '포보스(www.fobos.co.kr)'를 오픈하고 구매대행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해외 구매대행 분야는 '위즈위드'가 50%의 시장점유율을 선두를 차지하고 있다. 패션·잡화 등 국내 미유통 외국 브랜드를 수입대행하는 사이트로, '세븐진', '트루릴리전', '마크제이름스' 등 다양한 브랜드를 취급한다. 미국은 물론, '투스', '자라', '아소스' 등 유럽 브랜드도 만날 수 있다.

'이베이쇼핑(ebay.auction.co.kr)'은 옥션이 제공하는 구매대행 서비스로, 옥션 ID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다. 카메라 부품이나 수입자동차 부품, 희귀보석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한다. 비용은 기본수수료 3천원에 상품가격, 관세, 배송비를 더한 금액의 6%가 추가 수수료로 붙는다. 관세는 물품가격(운송비 포함)이 15만 원 이상일 때만 붙는다.

'G마켓(www.gmarket.co.kr)'은 '글로벌쇼핑' 카테고리를 통해 외국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판매자가 '글로벌쇼핑'을 통

35만원 토트백이 17만원 패션·가전 등 없는게 없어

■ '개성 만점' 상품 '클릭'으로 구매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직접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국내에 있는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다.

직접 구매의 경우 수수료 등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온라인 쇼핑몰은 한국까지 배송하지 않는 곳이 많은 데다 쇼핑몰에 대한 정보 취득은 물론, 배송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 해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구매대행 쇼핑몰은 국내에 있는 고객에게 주문을 받아 해외에서 물건을 대신 구입해서 배송해준다. 최신 유행상품을 수입업자가 들여온 상품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구매대행은 상품검색·주문, 입금 확인, 대리 구매, 현지 배송, 국제 운송·통관, 국내 운송 등 6가지 단계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주문한 뒤 물건을 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7~15일이 소요된다.

국외 구매는 환율에 따라 상품을 구매할 때와 실제 금액을 지불할 때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보통 구매자가 즉시구매를 할 때 환율로 견적이 형성되는 만큼 환율이 낮을 때 구매하면 유리하다.

www.tokyoholic.com and ebay.auction.co.kr screenshots showing product listings and pr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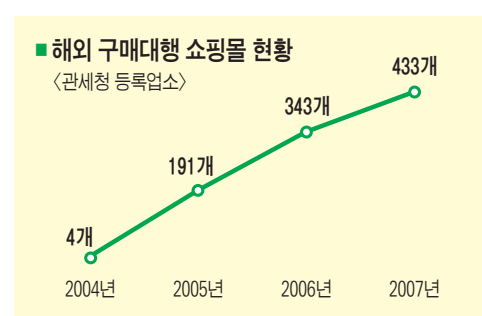
2001년 위즈위드 첫선...433곳 영업중

우리나라의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는 지난 2001년 9월 위즈위드가 '위즈숍'을 열면서 시작했다. 이후 위즈위드가 매년 20~50%의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자 수많은 후발업체들이 구매대행업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개에 불과했던 구매대행 쇼핑몰은 2005년 191개, 2006년 343개로 급증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433곳으로 늘었다. 관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소호(SOHO)몰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시장 규모가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처럼 3~4년새 시장 성장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몇 가지 새 트렌드가 나타났다. 우선 상품을 수입하는 국가가 확대됐다. 초기 미국 위주에서 최근엔 유럽, 일본으로 비즈니스의 영역이 넓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상품군 또한 크게 확대되는 추세다. 초창기 패션 상품에서 최근에는 리빙, 디지털 기기까지 다양한 구색을 갖추게 됐다.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이 다른 온라인몰에 '플인' 형태도 입점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엔조이뉴욕은 디앤삼, H몰, GS이숍, 신세계몰, 동대문



닷컴, G마켓 등 10여곳에 입점했다. 라호프루는 디앤삼, H몰, CJ몰 등에 들어갔으며, 위즈위드는 CJ몰, GS이숍, 인터넷파 등에도 각각 입점했다.

해외 인기 상품과 국내 히트 상품의 유행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구매대행 서비스 이후 두드러진 현상 가운데 하나다. 예전에는 미국과 한국의 트렌드가 6개월 이상 차이가 났지만 최근에는 격차 가 거의 없어졌다. 유아용품의 경우 현재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인기 있는 맥클래렌 유모차, 브라이트스 카시트, 범보 아기의자 등을 국내 가정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환율 하락세 때 더 유리 반품·취소 안돼 주의

해외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등록수수료나 구매대행수수료가 별도로 들지 않는다.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가격이 30~40% 가량 저렴하다.

'엔조이뉴욕'은 '쿠바', '렘', '비 앤드 디' 등 국내에서는 접하기 힘든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다. 주로 패션·잡화 상품을 다루며, 화장품도 리빙, 유아용품도 취급한다. 인기 브랜드로는 패션잡화 브랜드 '스티브 매든'과 프리미엄 청바지 '트루릴리전' 등이 있다.

■ 의류·신발 등 사이트 국내와 달라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는 주문 후 이들이 지나게 되면 해외현지에서 구매가 종료돼 취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품 사이즈와 설명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백화점이나 면세점과는 달리 환율을 통해서만 상품을 선택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해외 브랜드의 경우 의류와 신발 등의 사이즈가 국내와 다르게 표기되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대형 사이트에서 제시한 가격이나 적용시점의 환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운송비나 관세, 수수료 등은 적절하게 책정하고도 불합당 자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포장비용을 요구하거나 국제운송비를 비싸게 청구하는 등 별도 비용을 강요하는 곳이 있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최경희기자 choice@

합동법률경매 (광주지방법원 1부) 433-7798 H.P.: 011-1770-3328. Includes table for auction items like land and houses.

LC타워(주) (07)772-8004, (010)7154-6986.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Lotte Tower with details on units and prices.

일가공인중개사 (02)234-8216, (011)608-0896.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family housing.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011)602-2522.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for various properties.

국민공인중개사 (011)635-7939, (010)3114-6103. Real estate agency advertisement with detailed property listings.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02)525-0021, (011)612-3421. Real estate advisory company advertisement for investment and development.